

건강 칼럼

기후변화에 따라 중요해진 식량안보

예전 겨울철에는 3한(寒)4온(溫)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3일은 상대적으로 춥고 4일은 좀 따뜻하다고 하여 그렇게 불리어졌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일기예보에서 그런 표현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기온을 종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더하여 여름철에 '장마'라는 것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을 장마라 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예전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라고 보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1세대 만에 기후가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 즉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 이제는 사람이 걸어서 갈 수가 없고 (인류역사상 마지막으로 걸어서 등정한 탐험가: 2005년故 박영석 대장), 남극도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지구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식량생산성과 품질 손실을 초래하였고, 국가에 따라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의 가치분 소득을 낮춤으로써 결국은 상대적 서민층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된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온도 상승, 불고갈, 가뭄, 홍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 등이 곡물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바다 수면상승에 의한 염수의 육지침입은 지대가 낮은 국가나 지역, 농경지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친다. 열대지방에서는 더위 스트레스로 작물을 포함 사람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크고 작은 기후변화는 식량 공급체계에 충격을 주어 식량의 이동이 중단되거나 교란이 발생하면서 식량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결국은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취약계층의 식량 구매를 저해함으로써 기아와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가구의 경우 소득의 육지침입은 지대가 낮은 국가나 지역, 농경지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켜 농업 부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

친다. 열대지방에서는 더위 스트레스로 작물을 포함 사람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크고 작은 기후변화는 식량 공급체계에 충격을 주어 식량의 이동이 중단되거나 교란이 발생하면서 식량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결국은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취약계층의 식량 구매를 저해함으로써 기아와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가구의 경우 소득의 육지침입은 지대가 낮은 국가나 지역, 농경지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켜 농업 부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

친다. 열대지방에서는 더위 스트레스로 작물을 포함 사람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크고 작은 기후변화는 식량 공급체계에 충격을 주어 식량의 이동이 중단되거나 교란이 발생하면서 식량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결국은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취약계층의 식량 구매를 저해함으로써 기아와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다.

독자재언

스토킹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행

2021년 10월 본격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스토킹행위단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이다.

또한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스토킹 범죄로 인하여 광범한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해질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신고는 21년 14,509건에서 22년 29,565건으로 10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고 살인, 폭행 등 생명 또는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서울 중부 살인사건(21. 7. 19.), 서울 구로사건(22. 2. 15.), 안산 살인사건(22. 6. 8.), 신당역 살인사건(22. 9. 14.) 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피해자 안전이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을 빗대어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구애를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대근 교정경찰서 생활안전교정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설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 경쟁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얻기 위한 면세점 4곳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라와, 인천공항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입찰 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구역 입찰에 국내 주요 4개 면세업체가 모두 입찰에 참여했다.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고 올해 4월에 운영이 종료된 뒤 신규 사업자가 앞으로 7년의 운영권을 갖는다.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 신라면세점과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롯데는 당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과 해외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3

분기 매출액 기준 업계 1위를 신라면세점에 내줬다. 누적으로도 매출 830억 차이로 좁혀지는 등 타격이 가시화되면서 이번 입찰에 사활을 걸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김포공항에서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1 구역을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DF2 주류담배 판매 구역으로 연 매출이 419억 원가량이다.

주류, 담배가 수익성이 높을 데다 임대료도 기본임대로 3억 원에 매출연동형이라 업체들에겐 부담이 적다. 롯데, 신라뿐 아니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사업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입찰 이후엔 한국공항공사가 제안서를 평가해 영업요율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2개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2월 설 연휴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두봉 노인회 전북연합회장 3선 성공

제17대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선거에서 김두봉 현 연합회장이 3선에 성공했다.

전북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연합회장의 임기 만료(2월 27일)에 따라 1월 24일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1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이 결과 김두봉 후보가 단독 등록함으로써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당선으로 제15대, 16대에 이어 3선에 성공한 김두봉 회장은 전북연합회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인단체로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연합회 독립 청사 마련, '전북연합회 50년사' 발간, 경로당 활성화 등 8년 동안 성실하게 봉사했다. 제15대에는 3명의 후보가 나왔으나 대의원 3분의 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16대와 제17대에는 단독 후보로 당선돼 추대됐다.

그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

지회장, 분회장, 경로당 회장에 활동비 지원 △파크골프대회 신설을 비롯한 노인체육대회 확대를 밝혔다. 특히 지난 8년간은 하드웨어적인 일을 많이 했다. 앞으로 4년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986년생인 김두봉 연합회장(87)은 계북면농협조합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1·2대), 장수군 자문위원, 전라북도 자문위원, 민주평통 장수군 협의회장, 중앙상임위원, 대한노인회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노인회 중앙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다. 전라북도 향교재단 이사장, 전라북도 총효장학재단 이사장, 전라북도 발전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그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 노인들이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자긍심을 높이고 노인회 위상을 드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